

애드바이오텍, 2023년 1분기 실적 전년 수준 달성

▶ 전년대비 매출 0.53% 증가, 영업손실은 확대

<2023-05-15> 면역항체 전문 바이오 기업 애드바이오텍(대표 정홍걸, 179530)은 금일 공시를 통해 2023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애드바이오텍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0억, 영업손실 -15억, 당기순손실 -5억을 기록했다.

공시된 실적으로 분석할 때 아직 전방산업인 축산업과 수산업 등의 업황이 코로나의 해제에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애드바이오텍의 매출이나 영업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2021년 2022년에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더 나왔으나, 현재는 더욱 악화된 모양새다.

다만, 카나리아바이오 보유주식 등의 영향으로 영업외손익이 소폭 반영되어 당기순손실은 소폭 만회하였다.

애드바이오텍 관계자는 “그간 막혀있던 중국 시장이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다. 그동안 중국 현지 봉쇄로 인해 화상으로만 당사의 축우 및 새우 제품 마케팅을 진행하여 기대보다 지지부진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해외 영업 담당자가 직접 현지출장을 통해 농가로 찾아가 기술지원을 진행하며 소통하고, 현지에서 주요한 거래처들과의 명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지원에 나서는 등 계획했던 해외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있는 만큼, 곧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애드바이오텍 정홍걸 대표이사는 “그간 여러 대외적 상황으로 인해 매출 확대에 더딘 상황이 투자해주신 모든 분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다. 그러나, 대외적 사업환경이 다소 어렵더라도 내부적으로 잘 준비하고 다져가는 중이라 생각하고 있다. 양돈·축우·새우 등 다양한 축종별 IgY제품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며, 특히 중국에 양돈·축우용 IgY제품에 있어 현지 대기업과 납품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고, 효과가 입증되면 상당한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자신한다.

최근 국내 및 중국 동남아 등 해외지역의 사료원가 인상, 경기침체, 소비둔화로 인한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축산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하반기 이후 시장상황이 점차 회복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또한, VHH 나노바디 항체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시장의 Needs에 부합하는 항체치료제로 개발하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기존 사업 외에도 내염성 미생물 제품 개발하여 대기업에 납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납품을 개시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사업 진출에 힘써오고 있으며, 다변화된 제품구성으로 전방산업에 영향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 매진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캐나다 항암제 개발회사인 온코퀘스트 투자 결과에 따른 카나리아바이오 주식을 일부 수령하였



고, 이에 대한 추가적 후속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향후 투자수익도 회사에 반영될 것이므로, 재무적 상황은 호전되어 앞서 말씀 드린 향후 사업의 추진력은 확보 되어있다.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관련 문의

(주)애드바이오텍 최경민 본부장 Tel: 033-261-4907(212), email: kmchoi@adbiotech.com

(주)애드바이오텍 함승주 선임 Tel:033-261-4907(215) email: sjham@adbiotech.co.kr